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1 호

2020년 2월 15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 1.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런칭
- 2. 2020 UNGC 회원사 간담회 결과 (2/7, 2/14)
- 3. UNGC Leaders Summit 2020 (6/15~16) 2 차 얼리버드 등록 (~3/31)
- 4. 2020 UNGC 한국협회 정기 총회 (3/17)

# ■ 본부 소식

- 1. [Executive Update] 2020 다보스포럼, 기후변화와 잰더격차해소가 핵심
- 2. ILO, 이사회 내 성평등 실현 시, 20% 추가수익 올릴 수 있어

#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아랍에미리트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돕는 모바일 앱

- 2. [Goal 3, 4, 6, 7,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예금보험공사
- 3. [SDG 미디어 존] 성평등 실천 방안
  - 아만다 엘리스 (Amanda Ellis)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 Global Institute of Sustainability) 수석연구원 외 3 인

# ■ UNGC 회원 뉴스

- 1. 인천시설공단, UN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UNGC 가입
- 2. 현대차美 에너지부 MOU체결...수소에너지 글로벌 저변확대
- 3. 기업은행 "장애인 고용 늘리고 여성 유리천장 깨겠다"

# ■ CSR 뉴스

- 1. Partnership to combat corruption is launched
- 2. "부패 초기적발이 중요... 누구도 法위에 있지 않는 시스템 갖춰야"
- 3. 맥쿼리 "실물자산 투자자 91%, 5 년 내 ESG 투자 강화"
- 4. MSCI, 투자자들을 위한 기후 리스크 노출 평가 솔루션 출시
- 5. Women start slowly climbing Korea's corporate ladder, statistics show

#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 2. COP/COE 제출회원
- 3. 2019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 4. UNGC 로고 사용정책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소식

1. 2020 TGE(Target Gender Eqaulity) 런칭



#### 개요

TGE 는 SDGs 의 5 번째 목표(성평등)의 세부 목표(5.5)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촉진 프로그램입니다.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통한 자사 여성 정책 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동료 (peer- to-peer) 학습,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혜택

- 실질적이면서도 야심찬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해당 목표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해 자사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국가 상황에 맞는 성평등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평등 전략을 수립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 향상,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사의 여성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 자격 요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UNGC 회원사이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할 두 명의 실무진과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고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한 명의 임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참여 지역협회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음의 UNGC 지역협회가 TGE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레바논
- 멕시코
- 방글라데시
- 브라질
- 스리랑카
- 스페인
- 영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칠레
- 케냐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터키
- 파라과이
- 포르투갈
- 폴란드
- 호주

#### UNGC 가입 및 TGE 참여를 원하시나요?

가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 여지원 연구원 (02.749.2149/215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기업 등록: 2020 년 2월 3월
- 프로그램 시작: 2020 년 4월
- 프로그램 종료: 2021 년 3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Target Gender Equality 란 무엇인가요?

A: 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는 UNGC 회원사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020 년 TGE 프로그램은 임원 내 여성 리더십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2021 년에는 공급망 내 여성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같은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하는 총 20 곳의 UNGC 지역협회가 TGE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가 별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행동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 Q: TGE 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TGE를 통해 UNGC 회원사는 자사의 성평등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조직 내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설정합니다. TGE 참여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UNGC 10 대 원칙, 특히 인권 관련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과 노동 관련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그 외 모든 부문의 기업들이 여성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에 있어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UNGC 와 UN 여성기구(UN WOMEN)의 공동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현재 2,000 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WEPs CEO 지지 서명서에 참여했습니다.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목표 5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목표 5.5 는 2030 년까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연구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경제적 역량 강화는 교육 (목표 4), 건강 (목표 3), 빈곤 퇴치 (목표 1)와 기후 행동 (목표 13) 등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 금융공사(IFC)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ESG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습니다.

#### Q: TGE 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A: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은 UNGC 와 UN Women 이 2010 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기업이 직장, 산업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WEPs 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WEPs CEO 지지 성명서는 기업 지도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WEPs 의 핵심 요소인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TGE 참여 회원사는 WEPs GAP 툴을 활용하여 자사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자사의 성평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 WEPs CEO 지지 성명서를 작성한 기업은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WEPs 에 참여하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UNGC 회원사가 아닌 경우, 가입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UNGC 회원가입 안내]

# Q: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GAP Tool)은 무엇인가요?

A: GAP 툴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사용자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기업이 성평등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점과 약점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GAP 툴은 UNGC 가 운영하며 UN Women, IDB 다자 투자 기금 및 IDB Invest 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GAP Tool 은 이곳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Q: TGE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황 분석: GAP 툴을 활용해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기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역량 강화: 전문가와 TGE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워크숍은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합니다. 프로그램은 각 국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기업의 리더십이 고려할 수 있는 맞춤 이행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TGE 는 기업, 정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합니다. 대화를 통해 기업은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장벽을 허물고,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동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지지: TGE 참여기업은 여성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UNGC 의 미션에 동참할 수 있으며, 웹, 소셜미디어, UNGC 뉴스레터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UNGC 행사는 TGE 의 성과를 알리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년 내내 진행됩니다. 관련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여성역량강화원칙 연례 포럼(2020 WEPs Annual Forum, 2020. 3. 20)
  - UNGC 런칭 20 주년 리더스 서밋(UNGC Leaders Summit 2020, 2020. 6. 15-16)
  - 유엔 총회 주간(The 7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Week, 2020. 9. 15-30)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MGGLB, 2020. 9)

#### Q: TGE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가 신청: 2020 년 2월 17일 – 3월 말

● 활동 기간: 2020 년 4 월

● 프로그램 종료: 2021 년 3 월

자세한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TGE 참여기업은 다양한 연구 자료, 파트너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GE 참여는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귀사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고, 잠재적 여성 리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Q: 기업에서는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 두 명의 실무진을 'TGE 엠베서더(TGE Ambessoder)로 지정

- 대표 실무진은 TGE 관련 회의, 이벤트 참석 및 TGE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참여기업은 대표 실무진을 지정할 때 실무진의 개인 프로필(예, 남성/여성)과, 조직 내활동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한 명의 임원을 'TGE 챔피언(Champion)'로 지정
  - TGE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TGE 챔피언은 기업의 CEO 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CEO 가 TGE 챔피언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Q: 참여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 TGE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 Q: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TGE에 참여하고 있나요?

A: 본 프로그램은 현재 총 20개의 UNGC 지역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터키, 영국

#### Q: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도 TGE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참여 가능합니다. TGE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Q: TGE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목표 설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TGE 참여를 통해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미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기존에 설정한 목표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글로벌 목표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TGE 에 참여한 기업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야심찬 목표를 갖고 보다 더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소규모 전문가와 주요리드 기업으로 이루어진 TGE Global Coalition 에 초대받아,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TGE 활동에 도움이 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 TGE 참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020 TGE 참여 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된 기업에는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TGE 더 알아보기]

[참가신청서]

# 2. 2020 UNGC 회원사 간담회 결과 (2/7, 2/14)

3, 4 차 UNGC 한국협회 OPEN DAY 가 각각 2 월 7 일과 14 일에 개최되었습니다. 2 회에 걸쳐 40 명의 회원사 담당자 및 신규 가입 예정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 2 차에 이어 작년 UNGC 활동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회원사 여러분의 성공사례와 요구사항들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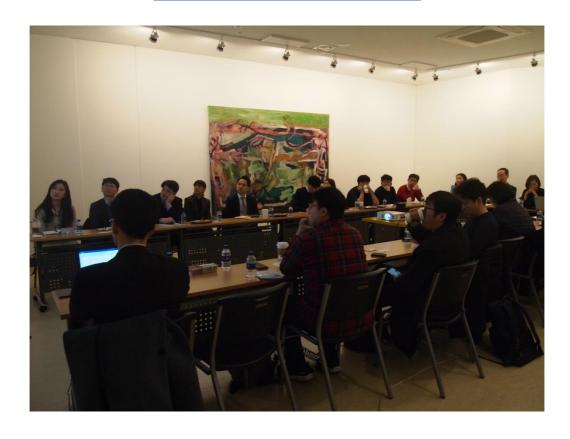
간담회의 첫 순서로 UNGC 소개 영상 시청과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박석범 사무총장은 UNGC 창립 20 주년을 기념해 6 월 15-16 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리더스 서밋 2020 에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올해 UNGC 한국협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을 통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CSR 활동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수란 주임연구원은 UNGC 의 작년 활동을 정리하며 1.5°C 기후행동 캠페인, SDG 미디어 존 Zone, SDG 액션 매니저 등 글로벌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UNGC 가 제공하고 있는 뉴스레터, 아카데미, 워킹그룹 등의 프로그램을 우리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은 SDGs 달성기한 10 년 동안 UNGC 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힘을 모아줄 것들 부탁했습니다.

이어 UNGC 한국협회 곽글 선임연구원은 올해 협회 중점 이슈인 △반부패, △여성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협회의 2020 년 아젠다 및 사업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후원의 반부패 프로젝트,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IS)'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UNGC 한국협회 연간계획 보러가기

## UNGC Leaders Summit 2020 정보 확인하기



이어 회원사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이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몇몇 회원사는 중에는 UNGC가 제공하는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이 자사의 지속가능성 전략구축 및 이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육, 네트워킹 등이 실질적인 CSR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평소 접근이 쉽지 않은 주요 투자자 및 정부 부처관계자 등을 초청한 회의 등이 긍정적 모멘텀이 되었다며, 이러한 기회를 자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공유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산업별, 주제별 지속가능성 심화 교육 및 네트워킹 필요
- △ 공기업, 사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이행 매뉴얼 제공
- △ 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기업 실무자들 간의 소통 활성화

- △ 임직원 대상 ESG, SDGs, 지속가능성 이슈 소통 및 교육 △ 정부부처 실무자 및 고위급 네트워킹 기회 마련
-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산업별 워킹그룹 운영과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회원사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몇몇 회원사들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해 각 기업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기업 운영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협회는 2019 년 신연회비 정책을 도입한 후 회원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으며,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이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협회활동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회원사들은 언제든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3. UNGC Leaders Summit 2020 (6/15~16) 2 차 얼리버드 등록 안내(~3/31)



2020 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 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 은 2020 년 6 월 15 일-16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리세 킹고



시릴 라마포사











자밀라 자밀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금번 Leaders Summit 행사는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되어 참여기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시기간 동안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관련 제품을 포춘 500 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계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6 월 16 일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콥 재비츠 센터 전시관 전경 (예시)>

15-16 일 본 행사 외에도 14 일에는 뉴욕의 곳곳을 경험하실 수 있는 투어 및 행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4 일에는 전 세계를 일주하는 크루즈이자 UN 특별협의 자격을 가진 NGO 로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피스보트(PEACE BOAT)가 뉴욕에 정박하는 날로, 내부투어 등 오직 뉴욕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행사 주간 하이라이트







6월 15일 월요일



6월 16일 화요일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 년 3월 31일까지 2차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 정기총회는 마이클 수 (Michael D. Hsu), 킴벌리 클라크 회장을 초청해 여성역량강화 및 위생·보건 분야의 사회적 임팩트 확산과 기업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11:00 13:30
-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아라볼룸 (6F)
- ·참가대상 회원 대표 및 실무진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처

# 2020 정기총회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30-11:00	등록 및 접수		
11:00 - 11:30	본 회 의  I. 개회사  II. 2020 총회 의제 및 전기 회의록 채택  III. 이사 일부 변경 의결  IV. 2019 사업, 결산 보고 및 의결  V. 2020 사업 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 보고 및 의결		
11:30 - 12:00	특별강연 - 마이클 수(Michael D. Hsu), 킴벌리 클라크 (Kimberly-Clark) 회장 및 CEO		
12:00 - 12:10	단체사진 촬영		
12:10-13:30	오찬		



# 마이클 수 (Michael D. Hsu)

現 킴벌리 클라크 회장 및 CEO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前 킴벌리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 (COO) Kraft Foods 부사장 H.J. Heinz 부사장 Booz Allen & Hamilton 컨설턴트

- \* 등 록: 아래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첨부한 위임장에 서명하시어 2월 28일 (금)까지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전 팩 화 02 749 2149/50 스 02 749 2148 문

의 gckorea@globalcompact.kr [2020 정기 총회 참가신청]

[참가 신청]

[위임장]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2020 다보스포럼, 기후변화와 잰더격차해소가 핵심



<왼쪽부터 Julie Sweet(액센츄어 CEO), Jennifer Morgan(SAP 공동 CEO), Lise Kingo(유엔글로벌콤팩트 CEO & 이사장), Antonio Guterres(UN 사무총장),

Ann Rosenburg(SAP-UN 파트너십 담당 수석 부사장 & SAP Next-Gen 의 글로벌 책임자), Peter Lacy(Accenture 전무이사 & 유럽전략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인한 전세계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유엔사무총장님, 유엔글로벌콤팩트, 그리고 수많은 우리 UNGC 회원사들과 함께 참석하였던 올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골자입니다. 전 세계 리더들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을 위해 더욱 담대해져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2020 WEF 리스크 보고서가 "모든 리스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기후변화 이슈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20 년 전 이곳에서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전 사무총장은 세계 시장이 인간적인 가치를 포용할 수 있도록 유엔과 기업 간의 공유 가치와 원칙을 담아낸 글로벌콤팩트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보스는 다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행동의 10 년(Decade of Action)'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행동할 것인가, 멈춰있을 것인가.

행동의 10 년은 '변화'를 지향합니다. 지구는 이제 기후 비상사태로 인한 실존적 위기를 우리에게 안겨줌으로써 "일상적인 비즈니스"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악화,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의 증가는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의 틀을 점점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언론과 사회운동가들이 다보스 포럼의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정 현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말로만 약속할 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포괄적이지 못했습니다.

# 이제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단 한 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10 년을 보다 대담한 자세로 시작하기를, 그리고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 하기를 말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적 기업들인 디지털 인프라 공급업체 SAP 및 전략컨설팅 기업 Accenture Strategy 와 함께 획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과 함께 SDG 앰비션(SDG Ambition)을 런칭하였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40개 시장에서 최소 1,000여 개의 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새롭고 혁신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 기업들이 2030 의제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을 펼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실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DG 앰비션은 기업들로 하여금 SDG 앰비션을 기업의 목적, 지배구조 및 전략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제품 및 서비스, 인력 관리 및 재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SDGs 를 깊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영업과 마케팅, 파트너십 및 주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DG 앰비션은 각국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들을 통해 퍼져나가,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임팩트가 도달할 수 있도록 보다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장 큰 화두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포괄적이며 정의로운 새 경제모델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포럼을 시작하며 모든 기업들에게 작년 6월에 런칭한 유엔글로벌콤팩트 Business Ambition for 1.5 C 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현재 약 200 여 개 기업이 Business Ambition for 1.5 C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서약하였으며, 우리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다 포괄적이며 정의로운 새 경제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 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젠더 격차 보고서>는 현세대와 차세대 여성들이 온전한 남녀 평등을 경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보다 냉담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업들이 Target Gender Equality(TGE)를 통한 젠더 격차 해소에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재계의 연대

행동의 10 년을 시작하며, 다가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써밋(Leaders Summit)에는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포부, 리더십,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행동들을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며, 재설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올 2030년을 위해행동해야합니다.

[자세히 보기]

# 2. ILO, 이사회 내 성평등 실현 시, 20% 추가수익 올릴 수 있어



2 월 12 일, UNGC 는 기업내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기업의 목표 설정 및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TGE (Target Gender Equality)를 런칭했습니다. TGE 는 기업 내 여성 임원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GE 는 전세계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0 년까지 SDGs 의 5 번째 목표(성평등)의 세부 목표(5.5)인 '여성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행동을 이끌 예정입니다.

TGE는 UNGC 와 UN Women 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의 이행을 장려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여성 비율 증가를 시작으로, 참여기업들의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 설정과 올바른 성평등 정책 채택을 지원합니다. 전 세계 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관리부문의 임원진은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이사회 내 성 다양성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13% 이상의 기업들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거나 여성 임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u>최근 국제노동기구 (ILO)의 연구 결과</u>에 따르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0-39%일 때,18.5%의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이사회 내에서 완전한 성평등과 성별 균형이 실현된다면, 20%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Women on enterprise boards lead to improved business performance:



When boardrooms are 30-39% women, enterprises are 18.5% more likely to have improved business outcomes



When boardrooms are genderbalanced, enterprises are 20% more likely to have improved business outc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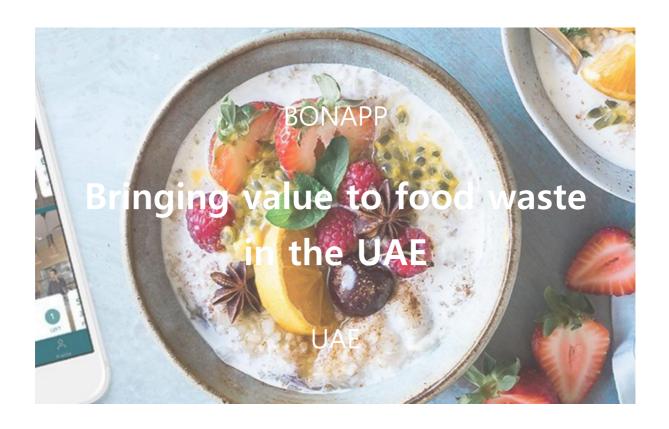
리세 킹고 (Lise Kingo) UNGC 사무총장은 "성별에 따른 경제적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이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257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제 모든 기업은 모든 직급의 여성직원비율을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s)와 기업 전략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TGE 는 20 여개 국의 UNGC 지역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WEPs 성격차 분석 툴을 통한 자사 성평등 정책 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동료 학습 (peer-to-peer learning)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세히 보기]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아랍에미리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모바일 앱



본앱 (BonApp) 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식품업체에서 남은 음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돕는 모바일 앱입니다.

본앱(BonApp)은 150 여개의 식품업체와 협력하여 업체에서 남은 고품질의 음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입니다. 앱 사용자는 구매 가능 음식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되는 음식의 할인 범위는 30~50%입니다. 결제는 앱 내에서 이루어지며, 매장 내 식사 및 포장이 가능합니다. 본앱은 지금까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 만 끼의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3 톤가량을 음식물 낭비를 줄였습니다. 앱은 2018 년 2 월 출시 후, 첫해에 1,000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마린, 에리카와 앨리스는 수년간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면서, 대량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규모에 경각심을 느껴 본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왜 본앱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

두바이 카본 (Dubai Carbon)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1 인당 평균 2.7kg 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음식물 쓰레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본앱은 출시 첫해에 3 톤가량의 음식물 낭비를 줄임으로써 앱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버려질 음식 쓰레기들에 경제적 가치를 불어넣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2. [Goal 4,5,8,10,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예금보험공사



###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예금보험공사(KDIC)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설립 된 공공기관입니다.

공사는 1990 년대 말 외환위기 부실금융 위기극복과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금융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믿고 2015년 UN과 국제사회가 새롭게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지하며,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라는 공사의 고유 역할 외에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에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예금보험공사"를 비전으로 정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사회적가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가치 추진전략>

SDGs	목표	세부 내용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		
	불평등 해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통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사회적	비전	금융에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예금보험공사			
가치	전략목표	포용적 금융 실현	좋은 일자리창출 및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한
추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안정 도모	가치창출 체계 구축
	12대	금융취약계층	고용확대 및	상생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전략과제	서비스 강화	고용의 질 개선	기업 생태계 지원	경영기반 강화
		서민 재기지원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금융권 동반성장 강화	열린혁신 체계 강화
		금융소비자	지역경제 활성화	선제적 금융재난	지속가능한
		권익보호 강화	지원	예방체계 구축	업무환경 조성

#### 2. SDGs 전략 및 사례

Goal 4, Goal 10.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금융교육 확대 및 인프라 강화

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신규 교육 수요를 발굴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는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노인구직자 등 신규 교육 대상 발굴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위해 교재 개선, 금융캠프 운영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금융뮤지컬 등의 체험형 교육을 개발해 교육 수용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

공사는 예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핵심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컨텐츠의 질을 제고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맞춤형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컨텐츠를 개발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개선항목	개선내용
국내거주 외국인 컨텐츠 다양화 - 양국 예보제도 비교		- 양국 예보제도 비교·설명 자료 추가
	품질제고	- 해외 예보기구와 협업하여 번역오류 수정 및 감수
	정보 접근성 제고	-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부보금융회사 영업점 자료 등 배포
장애인 및 노령층	흥보 확대	- 음성바코드를 활용한 홍보 확대, 수화 안내문 제작,
		- 노령층 관심사를 반영한 안내자료 및 교구형 홍보물 배포



# Goal 5, Goal 8.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투명성 제고

공사는 입사지원서 접수시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실력만을 바탕으로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고용불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각적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고졸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확대를 위하여 청년 및 대학생 인턴을 대상으로 인턴기간 중 소속팀내 일대일 직원 매칭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 뿐만 아니라 조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면접스터디 등을 실시하여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여성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

여성관리자 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여성관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멘토링, 집합교육 등을 통해 예비여성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교육 강화 등으로 성차별 없는 성평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차별	- 외부 전문가 참여 성평등위원회 활성화(연간 2회 회의 개최)		
예방 시스템 구축	- 노사공동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신설		
인사운영 지침	- 성희롱, 성차별 등에 대한 엄정한 인사운영		
홍보·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 및 대응절차 카드뉴스 홍보(2회) 및 고충처리 업무매뉴얼 배포		

#### Goal 11.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장기 미매각 PF 사업장 등의 공익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는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가 관리·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PF 사업장의 조기 매각, 매각 전 활용을 통해 사업장의 사용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공사는 장기간 미매각 상태의 파산저축은행 PF 사업장을 조기 정상화하고자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장기간 매각지연으로 인해 비어있던 PF 사업장을 매각 전까지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청년층 등을 위한 창업, 문화공간 등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매각가치를 제고하였고 경제적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 About these SDGs goals

#### SDGs 세부목표 4.5는

##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

#### 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4.5는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 해소 및 모든 취약계층의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72년 유엔총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촉진, 세계 발전노력에 여성의 완전한 통합, 세계평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 증대를 위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언하며,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을 위한 유엔 10개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98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여성을 위한 유엔 10년 검토 및 평가회의'와 1995년 회의에서 채택한 '베이징 선언'에서는 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를 명시했습니다. 성차별 철폐는 EFA 목표 5번, MDGs 목표 3번에 포함되어 2000년부터 유엔 여아교육이니셔티브(UNGEI)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고, 유네스코에서 취약계층 및 개도국의 전문, 직업 교육 및 훈련(Technical and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과 기술 개발 (Skills Development)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 Network Korea

#### SDGs 세부목표 10.2는

##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10.2는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1995)의 코펜하겐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동 선언에서는 경제적 배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을 제한하는 정치, 사회(문화・종교・성별)적 부분을 포함한,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장벽을 뛰어 넘어야 사회적 포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는 MDGs에서 권력과 배제를 형성하는 정치・사회적 관계, 불평등의 증가, 거시경제 정책의 모순 등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UNRISD의 국가, 지역별 정책성공사례를 반영하여 포용의 증진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5.5는

#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5.5는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UDHR, 1948) 제21조는 모든 이의 정치 참정권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제28조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적인 일에 관해 직접 혹은 직접 선택한 대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베이징행동강령(1995)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거나, 공정하게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은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녀의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2008)에 제안한 유엔 기구 재편안에 따라 발족된 유엔여성기구(2010)는 여성지위향상국(DAW)을 산하에 두어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SDGs도 여성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추진합니다. 

## SDGs 세부목표 8.5은

##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8.5는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제1차 세계여성회의(WWC)에서 남녀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채택된 동 회의 결의안(1975)에서는 여성이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보상을 남성과 동등하게 받는 것은 여성의 권리임을 선언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노동자기본권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에서는 ILO가 실업자, 이민자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고위급 회의(2006)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기회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어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논의한 결의안을 채택(2008)했습니다. 이 같은 남녀의 동등한 보상과 완전 고용에 관한 선언 및 결의안을 SDGs도 반영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11.3은

#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11.3은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에서 유엔인간정주재단(UNHHSF)은 도시화를 전담하는 첫 공식 유엔기구로 1975년에 발족하였습니다. UNGGSF는 개도국의 기술 및 금융자본 제공을 통해 주거지와 연관된 국가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제1차 인간정주회의(1976)에서 채택한 인간정주선언은 인간정주계획(UN-HABITAT)에서 UNHHSF의예산지원을 담당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이에 제2차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한 '해비타트 의제(1996)'에서는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거주지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계획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RIO+20에서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도시화를 다루었고 SDGs에 포함되었습니다.



[원문보기]

# 3. [SDG 미디어 존] 성 평등 실천 방안

아만다 엘리스 (Amanda Ellis)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 Global Institute of Sustainability)
 수석연구원 외 3 인

# [SDGs 달성에 있어 여성과 여성 CEO의 역할]



<아만다 엘리스 (Amanda Ellis)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Global Institute of Sustainability 수석연구원, 엘리스 넬슨 (Alyse Nelson) Vital Voices Global Partnership 대표, 마르니사 발리시아노 (Marcia Balisciano) RELX 대표, 로라 코흐 (Laura Koch) B Women 대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 년 1 월 21 일부터 4 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 여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 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는 아만다 엘리스 (Amanda Ellis)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Global Institute of Sustainability 의 수석연구원과 엘리스 넬슨 (Alyse Nelson) Vital Voices Global Partnership 대표, 파트너로 참여한 마르시아 발리시아노 (Marcia Balisciano) RELX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표와 로라 코흐 (Laura Giadorou Koch) B Women 이 참석하여 SDGs 달성에 있어 여성과 여성 CEO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이를 장려하는 'WE Empower'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WE Empower 는 2017 년 세계은행(World Bank)와 UN Women 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여성 리더십 확대를 목표로 하는 3 년 간의 이니셔티브로서, UNGC 도 2019 년부터 WE Empower 이니셔티브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E Empower 는 어떤 이니셔티브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만다 엘리스 수석연구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여성과 여성 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니셔티브로서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고, 뛰어난 여성기업인에서 투자를 하며 이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기업이 큰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며,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직관적인 사고방식을 이끌고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스 넬슨 대표는 WE Empower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리스 대표는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그 후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20,000 불 상당의 사업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참가자에게 5,000 불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교육은 전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Empower 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로라 코흐 대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wellness economy)이며, 더 이상 과거의 발전 지향적 경제가 아닌환경과 사람이 우선시 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개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중 5 번 성 평등 (Gender Equality)이 중요하며, 그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Global Voices, UNGC, 그리고 UN Women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스 넬슨 대표는 "10 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SDGs 달성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는 한 편, 여성에 사회 참여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남성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회원뉴스

1. 인천시설공단, UN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UNGC 가입



- 2월 11일, 인천시설공단 본사서 공단의 회원가입을 기념하는 가입증서 전달식 진행됨
- 인천시설공단은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
- 인천시설공단은 SDGs 이행을 위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보고서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제출할 계획
-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인권보호, 반부패 척결 등 선진 경영 환경을 마련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아주경제]

### 2. 현대차·美 에너지부 MOU 체결... 수소에너지 글로벌 저변확대



- 2 월 10 일, 현대차는 미국 에너지부(DOE)와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혁신과 저변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이들은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운영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학계, 정부, 기업 등과 공유하여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중 수용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대중화는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과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 운송수단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미 에너지부 마크 메네제스 차관은 "수소와 수쇼연료전지 기술은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 행정부는 가능한 모든 에너지 원의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계와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힘
- 한편, 지난해 현대차는 미국 커민스 (Cummins)사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시스템의 공급을 본격 시작할 예정

[동아일보]

# 3. 막오른 기업은행 "장애인 고용 늘리고 여성 유리천장 깨겠다"

- 2월 6일, 취임 후 첫 인터뷰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혁신금융·바른금융을 화두로 꺼내, 장애인 의무채용과 남녀 성차별 이슈를 거론함
-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의무고용 인원인 426명에서 47명이 부족한 379명이며, 현재 기업은행 임원 14명 가운데 여성은 부행장 1명
- 곧 단행될 인사에 관해서는, 유리 천장을 걷어내고 여성 인력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인사 원칙으로는 실력과 성과, 공정과 포용, 청탁 철퇴 등을 내세움
- 최근 노조와의 6 대 공동선언을 통해 언급된 "임원 및 행장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또한 제도적으로 노력을 기할 것임을 언급했음
- 인사 원칙으로 성과, 공정과 포용, 청탁 철되 등을 꼽았으며, "인사에서 반칙을 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청탁이나 줄서기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함

[매일경제]

# CSR 뉴스

1. Partnership to combat corruption is launched



- 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지멘스 본사와 세계은행의 후원으로 반부패 프로젝트 '기업청렴성 소사이어티(BIS: Business Integrity Society)'를 런칭했다고 발표함
- BIS 프로젝트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조성',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
   △반부패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등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국내에 공정한
   시장환경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
- 2020 년 상반기에는, △ 주요 정당 대상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정책 질의,
   △국회의원 반부패 서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CEO 대상 반부패 포럼, △기업 실무진 대상 반부패 세미나, △산업별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

[Korea Joongang Daily]

2. "부패 초기적발이 중요... 누구도 法위에 있지 않는 시스템 갖춰야"



- 2월 4일,6월 위켓 라벨르 IACC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준비 작업 차 방한함
- 라벨르 의장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한 명이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국민이함께 차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_ 특히 "각국이 국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힘
- 라벨르 의장은 부패 척결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했으며 "최대한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임

[문화일보]

# 3. 맥쿼리 "실물자산 투자자 91%, 5 년 내 ESG 투자 강화"

How do you expect your firm's approach to ESG will change in the next five years?



- 2월 13일, 맥쿼리 인프라스트럭처는 전 세계 150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실물자산 분야 투자자의 91%가 5년 내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분야에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사내(社内) ESG 투자에 대한 인식 및 담당 부서와 전문가의 부족 등의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미국 투자자의 24%, 아시아 투자자의 21%만이 사내 ESG 전담조직이 있다는 답변을 했음.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EMEA) 72%, 호주(71%)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큼
- 필 피터스 맥쿼리자산운용그룹 고객솔루션부문 대표는 "투자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속가능성 투자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물자산분야의 투자자들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활용하려면 업계에서도 ESG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측정 및 보고방법을 대폭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함

[아시아 경제]

4. MSCI, 투자자들을 위한 기후 리스크 노출 평가 솔루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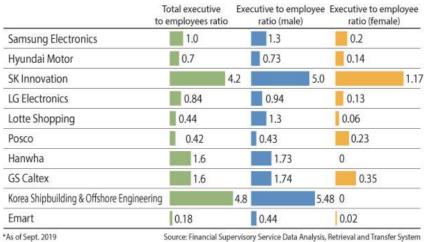


- 2월 5일, 뉴욕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노출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클라이밋 VaR)을 출시함
- 클라이밋 VaR 은 금융 기관이 기후 변화에 의한 최악의 영향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보안 특화한 모델링을 통해 혁신적 저탄소 투자 기회를 확인하도록 도와줌 또한, 기후 관련 비용을 잠재적 가치 영향으로 변환하여 시장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 클라이밋 VaR 은 투자자들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애플리케이션 (▲정책 전환 시나리오,
   ▲혁신 전환 시나리오, ▲포트폴리오 온난화 지수, ▲물리적 리스크와 기회) 으로 구성되며,
   기상 재해와 연관된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함.
- MSCI 의 레미 브리앙(Remy Briand) ESG 총괄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가 저탄소 경제 방향으로 극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대하는 세계의 태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투자업계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기후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코리아뉴스와이어]

# 5. Women start slowly climbing Korea's corporate ladder, statistics show

#### Battle of the sexes Unit: %



- \*As of Sept. 2019
- 지난 3 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5 곳의 여성 임원 비율이 상승함
-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에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할 것이 요구됨
- 10개 기업 직원 수 대비 임원 평균 비율은 백분율로 1.58%였으며, 남성 직원 대비 남성 임원의 비율은 1.9%, 여성 임원의 경우 0.23%에 불과했음
- 많은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 직원 대 여성 임원의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음
-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여성 우대 정책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Korea Joongang Daily]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곳 입니다.

- 인천시설공단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2. COP/COE 제출회원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세일인터내쇼날
- ㈜아진트랜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캬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삼덕통상㈜,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에프엠브이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롯데지주

2 월 31 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WE SUPPORT**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